

한국·일본·미국의 프린터 수급 및 수출입 동향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발행하는 일간 「해외시장」에서는 다가오는 고도 정보화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할 우리업체의 수출전략 도출을 위해 국내, 일본, 미국 등 3개 주요국의 컴퓨터 주변기기산업 동향을 심층분석, 게재했다. 이중 본지에서는 프린터의 수급 및 수출입 동향을 발췌, 게재하니,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1. 한국

1) 수급동향

95년 기준 총 94만대 규모의 국내 프린터시장은 PC 및 프론트 제품의 보급 확대에 따라 시장 도입기를 지나 도약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프린터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레이저 프린터의 잉크젯 프린터 시장잠식과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화 진전으로서 95년 기준 생산대수로 볼 때 잉크젯 프린터가 전년대비 30% 증가한 총 65만대가 판매되어 전체 프린터 시장의 69%를 차지했고 특히 컬러 잉크젯 프린터는 95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120% 증가한 총 40만대가 판매되어 전체 잉크젯 프린터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프린터시장의 최대변수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은 레이저 프린터용 엔진의 수입선 다변화조치 해제와 수요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홈프린터 시장으로서 국내 프린터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업체간의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면 도트프린터는 퇴조세가 더욱 뚜렷해져 94년 판매량은 14만대의 절반밖에 되지않는 7만대 규모에 그치고 있으

• 한국의 프린터 제품별 시판 현황

(단위 : 천대, %)

구 분	1993	1994	증감률
레이저프린터	48(10.7)	100(13.5)	108.3
잉크젯컬러	60(13.4)	180(24.3)	200.0
잉크젯흑백	146(32.6)	320(43.3)	119.2
도트프린터	194(43.3)	140(18.9)	-27.8
계	448(100.0)	740(100.0)	65.2

註 : ()는 기종별 비중

[자료 : 전자공업진흥회, 95년 12월]

며 최근에는 초소형, 초경량으로 설계된 휴대용 잉크젯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호조를 보였다.

96년 국내 프린터 시장규모는 95년 보다 15% 정도 늘어난 115만대에 이르고 이중 레이저 프린터 수요는 30 여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프린

터 시장 전체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참여와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시장에서 기반을 다져온 전문 중견업체들은 힘겨운 경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 수출입동향
수입선 다변화 품목(A4용

레이저 프린트)으로서 A3, B4 프린터 엔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국산화가 필요하며 잉크젯 프린터 가격 인하, 저가의 보급형 레이저 프린터 보급 확대 등으로 96년에는 수입이 전년대비 24.9% 증가한 4억4천 6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의 국별 프린터 수출 실적

1)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명	1994	1995
1	미 국	1,272(-5.1)	1,585(37.8)
2	E U	681(0.9)	1,091(82.6)
3	화 란	180(81.8)	285(89.9)
4	싱 가 포 르	184(77.8)	221(34.6)
5	독 일	125(-22.8)	204(93.2)
6	영 국	114(-49.4)	179(80.1)
7	일 본	65(102.9)	167(184.8)
8	캐 나 다	181(36.3)	144(-11.1)
9	프 랑 스	142(35.3)	139(4.3)
10	이 탈 리 아	94(113.0)	103(18.9)

[자료 : 상동]

2) 증가율 기준 상위 10개국

(단위 : US\$백만, %)

순위	국가명	1994	1995
1	말 레 이 시 아	8,341(-51.6)	30,656(294.1)
2	일 본	65(102.9)	167(184.8)
3	러 시 아	30(120.5)	49(110.4)
4	독 일	125(-22.8)	204(93.2)
5	화 란	180(81.8)	285(89.9)
6	E U	681(0.9)	1,091(82.6)
7	홍 콩	52(-28.8)	77(62.1)
8	오 스트 리 아	48(36.9)	64(38.2)
9	미 국	1,272(-5.1)	1,585(37.8)
10	싱 가 포 르	184(77.8)	221(34.6)

[자료 : 상동]

2. 일 본

1) 수급동향

프린터 종류별 생산비중을 보면, 터미널 프린터가 55%, 기기편집형이 45% 상당이며 활자 헤드방식별로는 80년대 이후 잉크젯 프린터 및 레이저 프린터가 비중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계의 프린터 생산에서 일본 및 일본계 메이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상당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엔고 등 생산여건 악화로 일본 국내생산은 레이저 프린터 등 고부가가치품목에 주력하고 기타 가격경쟁력을 요구하는 제품은 해외이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터미널 프린터는 기기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요처의 90% 상당을 PC 및 워크스테이션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8% 내외의 안정적인 생산을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컬러 터미널

• 일본의 프린터 생산 및 가격동향

(단위 : 천대, ¥십억, 엔/대, %)

구 분	1992	1993	1994
생산수량	13,922(-7.3)	13,651(-1.9)	12,788(1.7)
생산금액	658(-5.9)	584(-11.2)	536(-0.8)
평균단가	47,232	42,792	41,892

[자료 : 상동]

프린터의 경우는 여간 30% 이상의 생산증가가 기대되어 98년경에는 전체 터미널 프린터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기편입형 프린터(Printer for Built-in)는 연간 생산증가율이 7% 전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로 전탁,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ECR, POS 터미널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트 PC용으로 인쇄폭이 112mm 정도의 미니 컴퓨터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이즈 면에서는 데스크 톱 시리얼 프린터 크기 정도가 발매되고 있고, 풀컬러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1) 시리얼 프린터 (Serial Printer)

시리얼 프린터는 문자를 하나씩 인쇄하므로 인쇄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저렴한 가격이라는 특징이 있다. 80년대까지는 전체 프린터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했지만 90년대에 들어 급속히 줄어들어 현재 그 구성비율은 60%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Impact 방

식의 시리얼 프린터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대신 열전자식 및 잉크젯식 등 Non-Impact 방식 시리얼 프린터의 수요는 비교적 호조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시리얼 프린터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생산량 및 금액기준 모두에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터미널 프린터로서의 수요는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2) 라인프린터 (Line Printer)

행(라인) 단위로 인쇄하는 프린터로서 시리얼 프린터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가격이 고가이므로, 레이저 프린터 등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라인 프린터의 수요는 매년 감소추세로 생산대수 또한 연간 10% 이상 축소되고 있는데, 지난 91년도 국내생산이 약 10만대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생산은 급감해 94년은 절정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Impact 프린터의 감소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페이지 프린터 (Page Printer)

데이터 처리를 페이지단위로 수행하는 프린터로서 레이저 프린터 등 전자사진방식 프린터가 대표적이다.

레이저 프린터는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고가였으나 가격인하가 급진전되어 현재는 기타 기종에 비해 가격차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인데, 95년 평균 5만엔대 수준에서 98년경에는 3만엔대 이하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프린터 총생산에서 페이지 프린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94년 11월말 현재 생산수량은 201만8천대로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터미널 프린터 가운데 페이지 프린터의 비중은 30%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98년경은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수출입 동향

일본의 프린터 수출은 92년 이후 감소국면에 있는데, 95년 11월말 수출액은 2백41억3천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마이너스를 보였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94년기준 미국 1백47억 8천7백만엔(수출 비중 44.2%), 독일 69억3천7백만엔(20.7%) 영국 52억4천1백만엔(15.6%) 등으로 이들

• 일본의 프린터 수출동향

(단위 : 100만)

국 가	1993	1994	1995. 1~11
한 국	365	807	861
대 만	151	312	169
홍 콩	127	919	82
싱 가 포 르	249	186	122
영 국	6,626	5,241	4,402
프 랑 스	1,362	764	942
독 일	7,341	6,937	8,685
미 국	15,322	14,787	6,924
호 주	565	672	508
기 타	1,166	2,826	1,435
합 계	33,274	33,451	24,130

[자료 : 상동]

3개국에 전체 수출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3. 미 국

1) 수입동향

95년 미국의 프린터 판매는 약 1천4백50만대에 달했으며 99년까지는 1천7백9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종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컬러잉크젯 프린터가 전체 판매중 48.5%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해 미국 프린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레이저 프린터, 흑백잉크젯, 도트프린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흑백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판매가 크게 하락한 반면 다기능 프린터 판매는 홈오피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 95년에는 전년대비 171%나 늘어났다.

컬러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그동안 가격이 계속 하락해 왔는데 몇년전만 하더라도 선명도가 뛰어난 컬러프린터를 구입하려면 1천달러 가까이 비용이 들었지만 현재는 3백~4백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기종은 2백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컬러 잉크젯 프린터는 가

정용이 특히 많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아동들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고 게임을 하며, 게임 중에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를 그대로 프린트하는 경우가 많아 컬러프린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선명도가 많이 개선된 컬러잉크젯의 수요가 많은 실정이다.

기종별 주요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94년 현재 잉크젯은 휴렛팩커드가 전체의 54%를 차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버블젯으로 유명한 캐논과 애플, 엡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레이저프린터의 경우에는 휴렛팩커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데스크톱용은 67%, 가정용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의 레이저프린터 업체로는 애플, 렉스마크 등의 미국 업체와 오키다, 부라더 등 일본업체들이 있으나 휴렛팩커드에 비하면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편이다.

비즈니스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도트프린터의 경우에는

• 미국의 프린터 기종별 시장점유율('95년)

(단위 : 천대, 100억 엔/대, %)

구 분	컬러잉크젯	레이저	흑백잉크젯	9핀도트	24핀도트	포스트스크립	다기능
점 유 율	48.5	18.4	10.0	8.0	7.9	4.0	1.6

[자료 : 상동]

• 브랜드별 시장점유율(94년)

브랜 드	잉크젯프린터	데스크톱 레이저프린터	가정용 레이저프린터	도트 프린터
휴렛팩커드	54	67	51	-
캐논	24	-	-	-
에플	10	10	9	-
엡슨	8	-	8	24
Lexmark	-	9	2	-
Okidata	-	-	9	18
Brother	-	-	8	-
파나소닉	-	-	4	25
NBC	-	-	3	-
Citizen	-	-	-	9

[자료 : Appliance, 95년 9월]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파나소닉 25%, 엡슨 24%, 오키다 18%, 시티즌 9%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잉크젯 프린터에 점점 밀려 나고 있다.

2) 수출입 동향

미국의 프린터수입은 95년 9월 현재 26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95년 9월 현재 일본이 가장 많은 약 16억달러로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싱가포르가 5억7천만달러를 기록, 2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등 일본과 싱가포르가 전체 수입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의 비중이 높는데 잉크젯은 휴렛팩커드가 싱가포르에서 생산되어 재수입되고 있는 관계로 싱가포르가 95년

9월 현재 4억9천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캐논, 엡슨 등의 수출에 힘입어 2억1천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레이저제트의 경우 엡슨, 오키다, 부라더 등 일본업체들이 미 수입시장을 석

권하고 있다.

수출은 95년 9월 현재 약 15억달러중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3억달러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싱가포르, 멕시코, 독일, 화란 등 유럽 선진국에 고르게 수출되고 있다.

• 미국의 국별 프린터 수입실적

(단위 : US\$백만, %)

국 가	1993	1994	95. 1~9
일 본	2,688	2,802	1,588(60.1)
싱 가 포 르	358	380	567(21.5)
중 국	120	127	134(5.1)
태국	-	49	101(3.8)
멕시코	23	27	63(2.4)
독 일	46	68	42(1.6)
이 탈 리 아	26	76	31(1.2)
말 레 이 시 아	6	93	28(1.1)
영 국	9	29	25(0.9)
프 랑 스	15	17	13(0.5)
총 계	2,547	3,732	2,642

註 : 이하 표의 ()는 점유

[자료 : World Trade Atlas]

• 미국의 국별 프린터 수입실적

(단위 : US\$백만, %)

국 가	1993	1994	95. 1~9
한 국	7,129	37,852	16,779(15.2)
대 만	28,546	38,241	26,516(24.0)
캐 나 다	10,828	14,746	14,938(13.5)
영 국	16,921	20,254	12,735(11.5)
일 본	19,228	19,615	13,142(11.9)
이 스 라 엘	32,666	11,992	7,043(6.4)
싱 가 포 르	6,703	7,753	5,760(5.2)
프 랑 스	31	496	3,221(2.9)
중 국	3,052	5,188	2,392(2.2)
태 국	5,292	10,711	991(0.9)
총 계	147,907	179,421	110,276

[자료 : 상동]

기종별로는 미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잉크제트와 레이저 프린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 경쟁국동향

컴퓨터 프린터 시장은 휴렛 팩커드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94년 현재 잉크제트의 경우 54%, 데스크톱용 레이저프린터는 67%, 개인용 레이저프린터는 51%에 달한다.

단, 잉크제트프린터의 경우 캐논 등이 개발한 버블제트와의 치열한 경쟁속에 휴렛팩커드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하락한 상태이며 캐논은 전자제품 전문점, 백화점, 웨어하우스클럽, 양판점 등을 집중 공략한 결과 판매가 크게 늘어 휴렛팩커드를 많이 추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휴렛팩커드를 제외하고는 미 애플사와 일본업체들이 미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데 특히 파나소닉, 엡슨, 오키다 등 일

본업체들은 학교 및 사무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는 도트프린터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엡슨은 도트프린터만 생산해 오다 최근 잉크제트를 선보이며 시장점유율을 팔목할만하게 신장시키고 있는데 94년 7월 스타일러스 컬러잉크제트를 처음 선보인 이후 95년에는 2백50달러에서 최고 1천7백99달러에 달하는 4개의 신형 컬러잉크제트 모델을 소개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또한 매킨토시용 프린터도 생산하기 시작하는 등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프린터 하드웨어를 캐논사에 의존하고 있는 미 애플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14%나 하락했는데 가장 큰 시장인 학교 등에 도트프린터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미 업체인 Lexmark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난해 판매는 53%나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